

아직도 유효한 '시대의 문제의식'

21세기에도 빛날 20세기 고전 ③한국 사회과학편

이은진 ·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 사회과학이 근대적 학문으로 정립된 역사는 일천하다. 여기서 일천하다는 것은 그 역사가 짧다는 뜻이 아니라 학문이 발전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덜 성숙해 있었다는 의미다. 지식인 사회가 서구 중심의 시각으로 무장하고 있는 상황, 한국의 경험적인 연구를 가능케 하는 자료의 부족, 한국인의 주체적인 문제의식의 방향(지식인 사회에서의 자기 문제에 대한 평가 부족), 연구방법에서 지나친 서구 의존은 바로 사회과학이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을 증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인 100명이, 한국인이 저술하고 한국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책을 8권 선정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조건 아래에서도 문제의식·자료·연구방법의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줬다는 점을 평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의 탐구

선정된 8권이 꼭 현대적 의미에서 사회과학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지는 않는다. 저자의 전공으로 보면 공식적인 전문과정을 거치고 강단에서 사회과학을 가르쳤던 이들보다는 오히려 역사학자들이 많고(김용섭·김철준·강동진), 문제의식을 강조하는 제야학자들이 많다(리영희·박현채)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는 사회과학자라고 하더라도 역사적인 접근방식을 취한 경우(김준엽·김창순·박병호)나 정치경제학적인 방식을 취한 경우(백남운·박현채)가 대부분이다.

시기별로 보면 고대가 2권, 근대시기가 4권, 현재성을 띤 것이 2권이다. 근대 이후 시기가 사실상 사회과학의 영역이라고 할 때, 6권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근대의 시기도 역사학의 전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고대를 대상으로 한 저서도 사회과학자의 저술이 상당수에 달한다. 이는 사회과학 영역의 혼란을 말해준다. 즉 사회과학자의 문제의식이 한국의 근대성보다는 지배적인 서구 사회과학의 방법론, 자료접근법에 맞춰 발전한 까닭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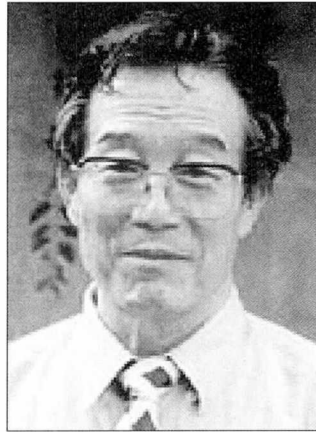
이제 21세기를 맞이해 한국 사회과학이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에 나타난 실학의 연구업적에 기대어 발전을 꾀하고, 조선 말기·일제침략기·서구 강대국에 의한 세계질서 형성기를 아우를 수 있는 문제의식, 연구방법, 자료발굴에 힘을 때라고 생각된다.

문제의식 측면에서는 우선 고대사를 대상으로 한 것들이 모범이 되고 있다.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는 자료의 엄밀성과 방법론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삼국시대 이전을 이해하는 데 전체사회를 일관성 있게 묘사하려고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 즉 삼국시대가 노예제사회였음을 밝히기 위해 병렬적인 서술을 했지만, 전체사회를 하나의 관점으로 해석한 점은 자료의 재구성에 충실한 역사학적 서술을 넘어서는 사회과학적 접근방식의 모범을 보여준다. 개설서적인 역사서술이 아닌 사회전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방식

을 채택한 것이다.

김철준의 《한국고대사회연구》도 부족한 사료를 기존 연구의 철저한 비판과 다른 사회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고대사회의 지배체제, 친족체계의 구조와 변화를 보여

주려고 시도했다. 이는 사료에 의존하는 방식을 극복하고, 사회과학적 법칙을 원용하려 했다는 점, 그리고 기존연구에 대한 철저한 비판을 통한 새로운 해석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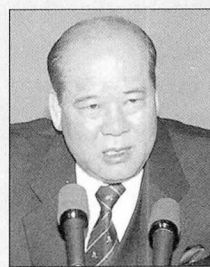
윗줄 왼쪽부터
김준엽·김창순·
김용섭·박병호·
리영희.

출판계 소식

서점행운권 대잔치

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이창연)는 서점 경기 활성화와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3월 한달 동안 '서점행운권 대잔치'를 벌인다. 전국 서점에서 도서 또는 도서상품권을 5천원 이상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달간 행운권을 배포하고, 이를 추첨해 1등 5명에게 프랑스 여행권(5박6일), 2등 10명에게 도서상품권 10만원 등을 제공한다. 협찬을 맡은 한국도서보급주식회사는 5백만장 가량의 행운권을 발행해 각 서점에 장당 20원씩 배포한다. (927-1437)

잡지협회 신임 회장 선출



한국잡지협회(회장 허광수)는 2월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제3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노영현(협회 부회장, 한국총회신학교 교수)씨를 제3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노영현씨는 총 투표 323표 가운데 168표를 얻어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자유경제출판문화상 우수도서 선정

자유기업센터(소장 공병호)는 제10회 자유경제출판문화상 우수도서로 《자본주의의 웃음, 자본주의의 눈물》(송병락, 김영사), 《IMF시대에도 한국은 있다》(이종철, 오름)를 선정했다. 추천도서로는 《신제도이론》(송현호, 민음사) 등 3권을 선정했다. 선정된 도서는 1천5백만원 또는 1천만원 상당을 구입해 전국 국·공립 도서관에 배포된다. 시상식은 3월 19일 전경련 회관에서 있을 예정. (3771-0465)

누구보다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원고집필, 편집디자인, 교정, 교열, 표지디자인 등 출판업무의 모두는 조직이나 컴퓨터가 아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어떤 작업을 하느냐가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책 한 권 만드는데 큰 조직에서 많은 사람이 덩벼들어야 하는 일도 아니고 좋은 기계가 좋은 품질을 만들어 주는 것도,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위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주위의 소개를 받아 외주처리하여 평년작인 결과물만 만들어 내는 식이어서도 곤란합니다.

모든 결과는 역시 맨 파워가 결정합니다.

내용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가 투입되어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고 비용 또한 작업인력이나 난이도, 작업기간에 따라 산출되어야 합니다.

출판작업은 어떤 회사보다는 어떤 전문가가 진행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용과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문가에게 맡겨 보십시오.

한국프리랜서그룹은/ 자서전, 사사, 사보 등 원고 집필/ 편집디자인(MAC, IBM 조판)/ 교정, 교열, 리라이팅/ 표지디자인/ 출판번역/ 일러스트, 만화/ 홍보책자 제작 등 출판물 제작 전 과정을 각 부문 해당 전문가를 투입, 대행해 드리는 회사입니다.

(주)한국프리랜서그룹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빌딩 1105호
전화:(02)784-4447 팩스:(02)784-4404
PC통신:천리안, 유니텔, 하이텔 go FREEL(프리랜서/ 전문직 취업정보)

한국프리랜서그룹은 1991년 설립되어 4천5백여명의 소속 회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만을 작업에 투입하는 한국최초의 전문인력 활용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20세기 국내 사회과학 분야 고전>

분야	저자	책제목	출판사	연도
정치	리영희	전환시대의 논리 : 아시아, 중국, 한국	창작과비평사	1974
	김준엽·김창순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I-V	고려대아세아문화연구소(절판)	1967-1976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절판)	1980
경제	김용섭	조선후기 농업사 연구 I·II	일조각	1970
	박현채	민족경제론	한길사	1978
사회문화	백남운	조선사회경제사	범우사	1933
	박병호	한국법제사고	법문사(절판)	1974
	김철준	한국고대사회연구	서울대출판부	1975

새롭게 해석되는 한국의 근대성

근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한국 근대성의 검토와 아울러 철저한 자료를 통한 재구성이라는 점에서 돋보인다. 김용섭의 《조선후기 농업사연구》는 경영형 부농이라는 현상을 통해 한국 자본주의의 자생적 발전을 드러내려 했다. 따라서 대규모 임차를 통한 농업경영이 실재했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다.

의도한 대로 대규모 임차에 의한 농업경영이 광범위하게 증명되고, 경영형 부농의 존재가 근대 사회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을 보여준다면, 근대는 이제까지와는 달리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김용섭의 저서는 그 대담한 주장과 증명방식으로 인해 고전으로 뽑힌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식의 면에서는 박병호의 《한국법제사고》를 중요한 업적으로 꼽을 수 있다. 근대화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가족의 재구성, 사적 소유권의 확립에 기초하고 있다. 근대적 국가체제의 성립과 생활세계의 기본을 이루는 친족, 토지 소유권에 대한 관계를 문제 삼은 점에서 오랫동안 근대 한국의 성립이라는 과제와 씨름해온 이들은 필독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금기된 주제에 침묵하지 않은 용기

반면 김준엽·김창순의 《한국공산주의 운동사》는 금기된 주제를 철저한 자료를 통해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고전에 속한다. 금기된 주제라고 침묵하지 않는 학자적 용기, 주제에 철저한 자료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한 노력을 요하는 것이었다.

강동진의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도 총

독부 자료를 통해 1920년대 일제의 한국 지배정책을 민족 분열과 이데올로기적 침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기존의 무력에 의한 탄압·경제적 착취라는 단순한 논리에서 우리 민족이 스스로 어떻게 당했는가로 초점을 옮긴 점에서 탁월한 역사적 교훈을 한국 사회에 오랫동안 던져왔다. 곧 일제의 지배가 무력과 이데올로기, 정치제도의 변화를 통해 한국인 내부를 변화시키고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던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 '일제를 통해 형성되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현대를 연구한 2권의 저서는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은 세계화된 경제체제에서 한국이 어떤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한다.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는 1969년 닉슨독트린으로 조성된 자주국방·자주외교의 과제를 중국의 외교노선, 미국의 베트남 정책을 통해 보여준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냉엄한 외교와 국방 현실을 미국·중국·일본의 원자료로 드러냄으로써, 한국 외교와 국방의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한국의 외교와 국방은 지금의 현실이며, 미국의 베트남 정책은 지나간 과거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는 냉전의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 사회과학의 현실에서는 충분히 고전이 될 만하다.

고전이란, 그것이 씌어진 시대의 문제의식의 소산이면서, 그러한 문제의식이 아직도 유효한 사회에서 선택된 것을 의미한다. ❖